

##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기질 및 부모양육행동의 중단 효과: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조절된 매개 검증\*

이 주 영<sup>†</sup>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이 부모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지 검증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팬텀 변수를 활용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통해 알아보았다. 총 1,608명의 중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변인들에 대해 6개월 간격으로 총 3번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1차 평가에는 청소년의 기질, 2차 평가에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3차 평가에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측정되었다. 분석 결과, 위험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남자의 경우 애정, 과잉간섭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여자의 경우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매개효과의 차이는 애정에서만 유의했으며 애정의 매개효과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컸다.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매개효과의 차이는 애정에 대해서만 유의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매개효과가 더 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이 부모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기 중단 자료에서 인과적으로 확인했다는 점과 성별에 따라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내재화, 외현화, 자극추구, 위험회피, 부모양육행동, 조절된 매개, 중단

\* 본 논문은 2012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주영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 (136-714)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 Tel : 02-940-4498 / Fax : 02-940-4490 / E-mail : jylee7694@dongduk.ac.kr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로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했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며 과도기이다(장휘숙, 2009). 이 시기 동안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물론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증가하는 자율성과 관련된 발달 과업에 직면해야 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통제를 줄이면서도 여전히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여러 변화는 개인 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oesner & Eccles, 1998). 내재화 문제는 불안이나 우울, 위축 등과 같이 내적인 증상이 주가 되는 정서 문제이고, 외현화 문제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비행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행동이 주가 되는 행동 문제이다. 초기 청소년기는 우울 증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Oldehinkel, Veenstra, Ormel, De Winter, & Verhulst, 2006),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왔다(Muhtadie, Zhou, Eisenberg, & Wang, 2013).

기질은 생물학적인 기반을 가진 개인의 정서, 행동 스타일로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질을 정의하여 청소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의 관련성을 밝혀왔는데, 기질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에 관

해 연구해 온 Cloninger(1987, 2004)는 기질을 ‘다양한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에 관여하는 적응체계에서의 개인차’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자극에 의해 행동이 활성화되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위험한 자극에 의해 행동이 억제되는 위험회피(harm avoidance), 사회적 보상 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지속적인 강화 없이도 행동을 지속하는 인내력(persistence)의 네 가지 기질 차원을 제안하였다. 이 중에서 높은 자극추구 성향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고 높은 위험회피 성향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구연익, 노경란, 2012; 문보경, 이정숙, 2013; 이주영, 오경자, 2010; 임진현, 2005; Luby, Svrakic, McCallum, Przybeck, & Cloninger, 1999; Ruchkin, Eisemann, & Cloninger, 1998; Schmeck & Poustka, 2001).

개인의 타고난 기질은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지만 기질 자체만으로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혹은 역기능적인 가족 특성과 합쳐질 때 비로소 문제행동이 발생하고(Bates, Pettit, Dodge, & Ridge, 1998),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Belsky, Robins, & Gamble, 1984). 아동, 청소년의 기질은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을 확대(amplify)시키거나 약화(mitigate)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조절이 어렵거나 극단적으로 반응적인 기질을 가진 아동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아동, 청소년의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이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경험

적으로 보여주었다. Oldehinkel, Veenstra, Ormel, De Winter와 Verhulst(2006)은 두려움(fearfulness)이 많은 청소년들은 처벌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부나 애정 부족 등의 환경에서 특히 우울 증상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으며, 좌절(frustration)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또는 과제 수행에 방해물이 생겼을 때 겪게 되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과보호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내재화 문제와 관련될 수 있고 강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좌절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외현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Sentse, Veenstra, Lindenberg, Verhulst와 Ormel(2009)은 11세 때 측정된 기질 및 부모양육태도가 13세 때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의 거부는 두려움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및 좌절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켰고, 부모의 애정은 기질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buffer)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9세의 중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Muhtadie, Zhou, Eisenberg와 Wang(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와 독재적 양육방식<sup>1)</sup>이 상호작용하여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였으며, 분노/좌절(anger/frustration) 기질과 권위적 양육방식<sup>2)</sup>이 상호작용하여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였다. 즉, 독재적 양육 수준이 높을 때는 의도적 통제가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고, 권위적 양육 수준이 낮을 때는 분노/좌절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Miner와 Clarke-Stewart(2008)는 2세부터 9

세까지의 외현화 문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9세 때의 높은 외현화 문제는 아동의 성별(남아), 영아기의 까다로운 기질, 어머니의 강압적 훈육 등에 의해 예측되었는데 특히 까다로운 기질과 강압적 훈육의 상호작용이 외현화 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강압적 훈육이 낮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기질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강압적 훈육이 높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기질일수록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강압적이지 않으면 까다로운 기질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강압적이면 까다로운 기질이 외현화 문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것들로써, 부모양육행동이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문제행동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기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녀가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성향을 보이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강압적이거나 처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이는 아동을 더욱 위축시키거나 공격적으로 만들어 문제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Lee & Bates, 1985; Sanson, Hemphill, & Smart, 2004). 즉, 아동이 가진 독특한 특성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South, Krueger, Johnson, & Iacono, 2008). 9~13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격 특성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3년 후의 외현화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Prinzie, van der Sluis, de Haan과 Dekovic(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아동이 덜 우호적일

1) authoritarian, 애정이 부족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며 과도한 처벌을 사용하는 양육방식  
2) authoritative, 자녀에 대한 애정과 수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적절한 수준의 제한을 두는 양육방식

수록 어머니의 과잉반응이 증가했고 이는 3년 후의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성실할수록 아버지들의 권위적 양육태도가 증가했고 이는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켰다. Ganiban, Ulbricht, Saudino, Reiss와 Neiderhiser(2011)는 10~15세 사이의 쌍생아 및 형제, 입양형제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성이 부모양육행동의 부정성(negativity)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성은 부모의 부정성과 정적 관련성이 있었으며(De Clercq, Van Leeuwen, De Fruyt, Van Hiel, & Mervielde, 2008; Kim, Conger, Lorenz, & Elder, 2001),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Stice & Gonzales, 1998). 자녀의 기질은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변인이 될 수 있으며(이경하, 서소정, 2012),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의해 매개되어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임현주, 이대균, 2013). 선행 연구들을 참고할 때, 아동 및 청소년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다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국내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부모양육행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에는 일반적으로 성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며(Hoffmann & Su, 1998; Patton, Coffey, Posterino, Carlin, &

Bowes, 2003; Silberg, Rutter, Neale, & Eaves, 2001), 남자들에 비해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부모양육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한편,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거부나 애정 부족에 덜 민감할 수 있다(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 하지만 부모의 과보호는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Enns, Cox, & Larsen, 2000), 실제로 남자들은 부모의 지지와 간섭을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Marshall & Chassin, 2000). Beauchaine, Hong과 March(2008)는 남자의 반사회적 행동은 강한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자의 반사회적 행동은 환경적 또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Burnette, Oshri, Lax, Richards와 Ragbeer(2012)는 9~12세 아동들을 2.5년 간격으로 3번 측정 한 자료에서 강압적 양육태도가 외현화 문제를 거쳐 반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여자 집단에서만 유의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부모양육행동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문제행동 발생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여자의 경우 부모양육행동보다는 강력한 기질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Leve, Kim과 Pears(2005)는 5세부터 17세까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아동의 기질과 일련의 가정환경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남자는 5세 때의 강압적 훈육이 단독으로 17세 때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 반면 여자는 5세 때의 강압적 훈육이 취약한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17세 때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부모의 강압적 훈육은 충동성이 높고 공포/수줍음 기질이 낮을 때에만 외현화 문제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즉, 여자의 경우 부모의 강압적 훈육과 같은 환경적인 위험요인만으로는 높은 외현화 문제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교사는 남자와 여자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데, 여자들은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의사소통적인 행동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다 (Fagot, Hagan, Leinbach, & Kronsberg, 1985).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여자들의 외현화 문제들은 환경적인 위험요인 하에서도 억압되는 경우가 많고, 강력한 기질의 영향 없이는 외현화 문제가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에 있어서의 성차가 보고되고 있는데, 강지현과 오경자(2011)는 만 3~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들은 자극 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적대적 양육행동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여아들은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온정적 양육행동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아들은 기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여아들은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영과 김종남(2011)의 연구에서는 경도 이상의 우울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행동억제 기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에서만 어머니의 낮은 감독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 혹은 매개하는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문제에,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고려할 때 양육행동이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인과적으로 보다 분명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인으로서 다른 시점에 측정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횡단 자료에 근거하여 모형 검증을 시도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고, 성차를 밝히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뒤 예측변인들의 설명력을 비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문제행동을 각각 6개월 간격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하여 청소년의 위험회피 기질과 자극추구 기질이 부모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어 이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팬텀변수를 활용한 조절된 매개 분석 절차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기질, 부모양육행동, 문제행동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부모양육행동의 성차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임상적 개입을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3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6개월 간격으로 총 3차례 자료를 수집하였다. 1학년은 1학년 2학기에 1차 평가, 2학년 1학기에 2차 평가, 2학년 2학기에 3차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2학년은 2학년 2학기에 1차 평가, 3학년 1학기에 2차 평가, 3학년 2학기에 3차 평가가 이루어졌다. 1차 평가에서는 기질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2차 평가에서는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3차 평가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세 차례 평가에서 임의 응답과 무성의한 응답 사례는 제외하였으며, 각 척도의 결측치가 10%가 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뢰로운 점수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2, 3차 자료를 통합한 1,608명(남자 799명, 여자 80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차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13.45세( $SD=.55$ ), 여자가 13.42세( $SD=.57$ )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주영(2010), 이주영과 오경자(2011)의 연구를 참고하면 된다.

### 측정 도구

###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 JTCI 12-18)

청소년의 기질을 평가하기 위해 Cloninger, Przybeck, Svrakic과 Wetzel(1994)이 개발한 기질 및 성격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를 바탕으로 독일의 Goth(2000)가 청소년용으로 제작한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 JTCI 12-18)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은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이 표준화한 자기보고식 검사로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0점), ‘별로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그렇다’(3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된다. 본 검사는 기질을 측정하는 4개의 척도(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와 성격을 측정하는 3개의 척도(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질 척도 44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와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점수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자극추구가 .75, 위험회피가 .82였다. 기질 척도는 1차 평가 시에만 실시되었다.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극추구 기질은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인 보상 단서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 경향성으로 이러한 기질이 높은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 활동을 보이며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을 보인다. 한편, 위험회피 기질

은 처벌이나 위협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전적 경향성으로 이러한 기질이 높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이 많고 비판적이며, 대인관계에서도 수줍음이 많고 조심성이 많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Parker, Tulping과 Brown(1979)이 성인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BI는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Gamsa(1987)가 5개의 부정문항을 긍정문항으로 개정한 PBI를 송지영(1992)이 번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경주와 오경자(2002)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arker, Tulping과 Brown(1979)은 척도 개발 당시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차원을 가정하였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보경, 민병배, 2006; 문경주, 오경자, 2002; Chambers, Power, Loucks, & Swanson, 2000; Heider, Matschinger, Bernett, Vilagut, Martinez-Alonso, Dietrich, & Angermeyer, 2005; Mohr, Preisig, Fenton, & Ferrero, 1999; Narita, Sato, Hirano, Gota, Sakado, & Uehara, 2000; Reti, Samuels, Eaton, Bienvenu, Costa, Nestadt, 2002)에서 일관되게 3개 요인이 추출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김보경과 민병배(2006)가 사용한 애정(warmth), 자율성 존중(autonomy granting), 과잉간섭(intrusion)의 3개 요인 점수를 산출하였다. 애정 요인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돌봄이나 따뜻함과 관련되며, 자율성 존중 요인은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하거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침입적 행동들과 관련된다. 각각의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어머니의 애정 .91, 아버지의 애정 .92, 어머니의 자율성 존중 .79, 아버지의 자율성 존중 .79, 어머니의 과잉간섭 .72, 아버지의 과잉간섭 .69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 3개 요인 각각에 대해 어머니 점수와 아버지 점수를 합한 총점을 산출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PBI는 2차 평가 시에만 실시되었다.

**청소년 행동평가척도-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 개정된 YSR(Achenbach & Rescorla, 2001)을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YSR은 자기보고식 검사로 크게 적응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3점 척도로 평가하는 112문항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척도가 포함되며, 외현화 문제행동에는 규칙위반, 공격행동 척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척도

와 외현화 척도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각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검사의 표준화 자료에서 각각 .87과 .84였다. YSR은 3차 평가 시에만 실시되었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1차 시기(T1)의 기질이 2차 시기(T2)의 부모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어 3차 시기(T3)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기질을,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극추구 기질을 상징한 후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 각각의 매개효과를 별도로 검증하였다(그림 1). 즉, 위험회피 → 애정 → 내재화, 위험회피 → 자율성 존중 → 내재화, 위험회피 → 과잉간섭 → 내재화, 자극추구 → 애정 → 외현화, 자극추구 → 자율성 존중 → 외현화, 자극추구 → 과잉간섭 → 외현화의 6개 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활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매개효과의 유의도 평가에서는 95% 신뢰수준을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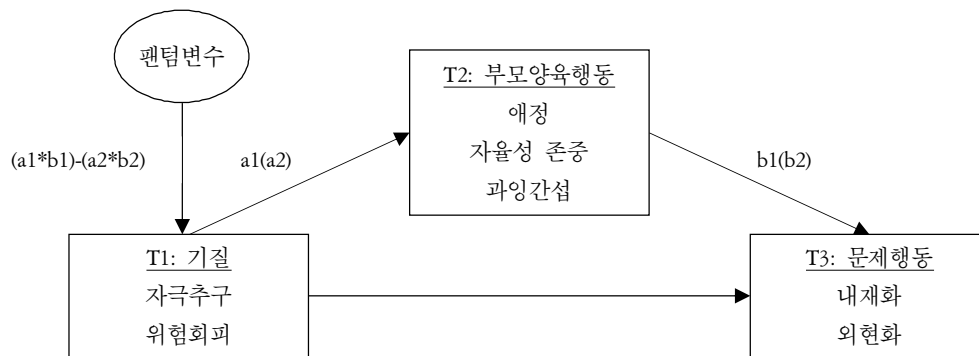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한 조절된 매개 분석 절차를 따랐다(홍세희, 2012; Rindskopf, 1984). 조절된 매개(moderated mediation)는 매개효과가 제 3의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팬텀변수의 계수를  $(a1*b1)-(a2*b2)$ 로 제약한 후 이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였으며, 조절된 매개 검증을 위해 Mplus 5.21(Muthen & Muthen, 1998-2009)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

먼저,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주.  $a_1$ ,  $b_1$ 는 남자 집단의 계수,  $a_2$ ,  $b_2$ 는 여자 집단의 계수

그림 1. 분석 모형



표 1. 성별에 따른 기질, 부모양육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평균 및 표준편차

측정시기	측정변인	남자 (n=799)	여자 (n=809)	t
1차 기질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19.12 (6.04)	20.12 (6.33)	-3.03**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	19.02 (6.69)	19.36 (7.09)	-0.92
2차 부모양육행동	애정(Warmth)	49.02 (12.07)	49.29 (12.52)	-0.41
	자율성 존중(Autonomy Granting)	24.04 (6.86)	24.90 (7.24)	-2.24*
	과잉간섭(Intrusion)	9.81 (5.87)	10.05 (6.23)	-0.73
3차 문제행동	내재화(Internalizing)	8.48 (7.81)	11.96 (9.10)	-7.91***
	외현화(Externalizing)	9.33 (7.44)	9.57 (6.59)	-0.65

표 안은 평균, 괄호 안은 표준편차

\* $p < .05$ , \*\* $p < .01$ , \*\*\* $p < .001$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차 평가 시에 측정된 기질의 경우, 자극추구에서만 남녀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t = -3.03$ ,  $p < .01$ . 2차 평가 시에 측정된 부모양육행동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의 자율성 존중 행동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t = -2.24$ ,  $p < .05$ . 마지막 3차 평가 시에 측정된 문제행동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t = -7.91$ ,  $p < .001$ .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히 자극추구는 외현화 문제와,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문제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극추구와 위험회피 기질 모두 부모의 애정 및

표 2. 성별에 따른 기질, 부모양육행동,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상관

		1	2	3	4	5	6	7
1차 기질	1. 자극추구		-.02	-.22***	-.16***	.17***	.15***	.41***
	2. 위험회피	.06		-.17***	-.15***	.16***	.44***	.22***
2차 부모양육행동	3. 애정	-.13**	-.09*		.70***	-.30***	-.36***	-.33***
	4. 자율성 존중	-.14**	-.05	.64***		-.46***	-.31***	-.28***
	5. 과잉간섭	.19***	.13**	-.23***	-.33***		.25***	.26***
3차 문제행동	6. 내재화	.16***	.39***	-.18***	-.11**	.20***		.62***
	7. 외현화	.42***	.10**	-.18***	-.17***	.21***	.60***	

대각선 아래는 남자, 대각선 위는 여자

\* $p < .05$ , \*\* $p < .01$ , \*\*\* $p < .001$

자율성 존중과는 부적 상관을, 과잉간섭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단, 남자의 경우 위협회피 기질과 자율성 존중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극추구와 위협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애정 및 자율성 존중 양육행동은 낮게 지각하는 반면 과잉간섭 양육행동은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애정과 자율성 존중 양육행동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부적 상관, 과잉간섭 양육행동은 두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여자 집단에서 부모양육행동과 문제행동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성별에 따른 조절된 매개 분석

위험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위험회피와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 및 자극추구와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를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 양육행동이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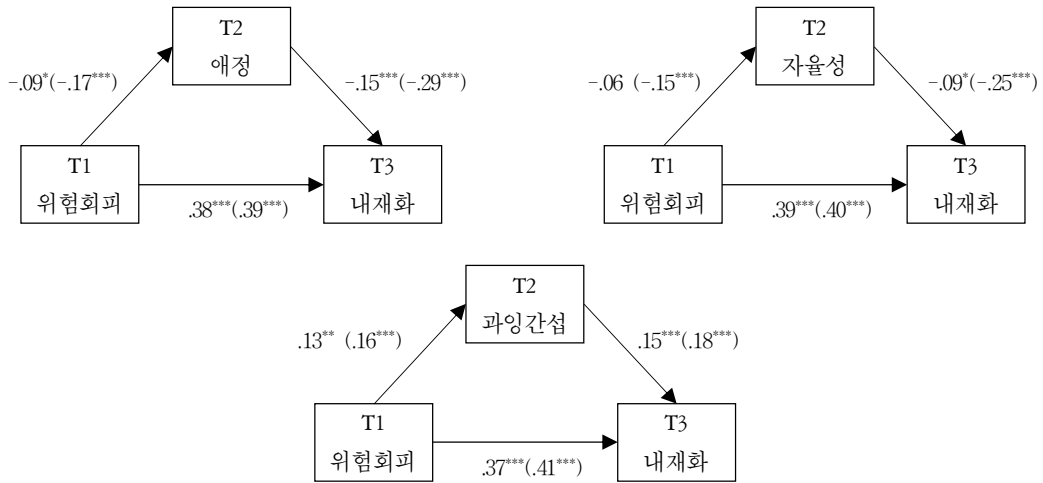
매개하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위험회피와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의 매개모형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고, 그림 2에 각 모형의 경로계수를 표시하였다. 표 4에는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결과와 팬텀변수를 활용한 조절된 매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과 그림 2를 보면, 남자 집단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자율성 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녀 모두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이 감소하고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며,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존중 모형에서는 남자의 경우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고, 부모의 자율성 존중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험회피 기질은 부

표 3. 내재화 문제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매개변인	경로	남자		여자	
		B (SE)	$\beta$	B (SE)	$\beta$
애정	T1 위험회피 → T2 애정	-.17 (.08)	-.09*	-.30 (.07)	-.17***
	T2 애정 → T3 내재화	-.10 (.03)	-.15***	-.21 (.03)	-.29***
	T1 위험회피 → T3 내재화	.44 (.04)	.38***	.50 (.05)	.39***
자율성 존중	T1 위험회피 → T2 자율성 존중	-.06 (.05)	-.06	-.15 (.04)	-.15***
	T2 자율성 존중 → T3 내재화	-.10 (.05)	-.09*	-.31 (.04)	-.25***
	T1 위험회피 → T3 내재화	.45 (.04)	.39***	.51 (.05)	.40***
과잉간섭	T1 위험회피 → T2 과잉간섭	.12 (.04)	.13**	.14 (.03)	.16***
	T2 과잉간섭 → T3 내재화	.20 (.06)	.15***	.26 (.05)	.18***
	T1 위험회피 → T3 내재화	.43 (.04)	.37***	.53 (.05)	.41***

\* $p < .05$ , \*\* $p < .01$ , \*\*\* $p < .001$



주. 괄호 밖은 남자 집단의 계수, 괄호 안은 여자 집단의 표준화 계수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위험회피와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매개모형

모의 자율성 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과잉간섭 모형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위험회피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과잉간섭과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를 살펴

보면, 부트스트랩 절차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므로 위험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애정과 과잉간섭의 매개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자율성 존중의 매개효과는 여자 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또한,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각

표 4. 내재화 문제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 결과

매개변인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매개효과의 남녀 차이 (팬텀변수 계수)	
		하한값	상한값		
애정	남	.02	.004	.038	여자 > 남자 -.05*
	여	.06	.033	.103	
자율성 존중	남	.01	-.001	.020	남자: 매개효과 없음
	여	.05	.019	.077	
과잉간섭	남	.02	.008	.047	남녀 차이 없음 -.01
	여	.04	.017	.063	

\* $p < .05$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의 차이는 애정 변인에서만 확인되었다(남자: .02, 여자: .06). 즉, 애정의 매개효과는 여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과잉간섭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위험회피 기질이 부모의 애정에 의해 매개되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여자 집단에서 더 크다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

다음으로, 자극추구와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의 매개모형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고, 그림 3에 각 모형의 경로계수를 표시하였다. 표 6에는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 결과와 팬텀변수를 활용한 조절된 매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와 그림 3을 보면, 남자와 여자 집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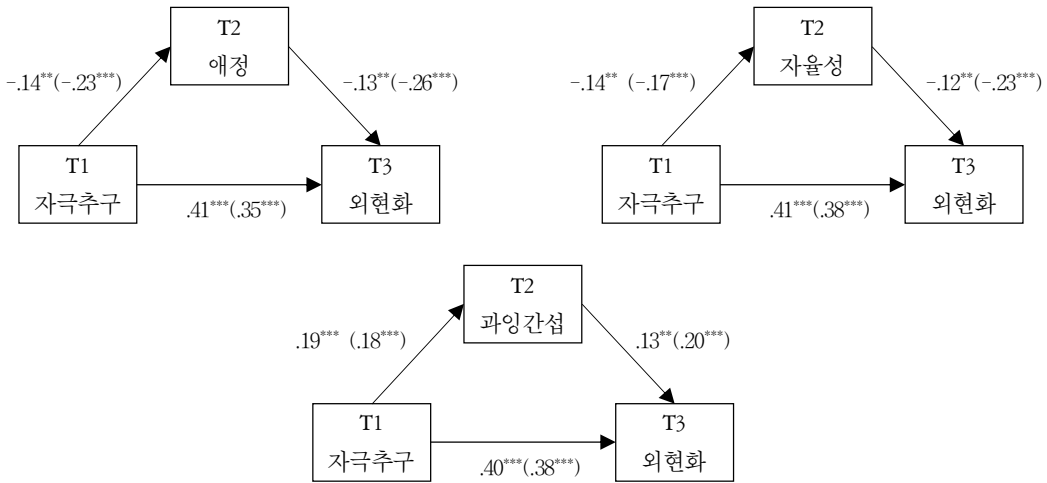
서 각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녀 모두에서 자극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애정이 감소하고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며,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존중 모형에서는 남녀 모두 자극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율성 존중이 감소하고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며, 부모의 자율성 존중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감소하였다. 과잉간섭 모형에서는 남녀 모두 자극추구 기질이 높을수록 부모의 과잉간섭과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의 매개효과는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각 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의 차이는 애정 변인에서만 확

표 5. 외현화 문제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매개변인	경로	남자		여자	
		B (SE)	$\beta$	B (SE)	$\beta$
애정	T1 자극추구 → T2 애정	-.27 (.08)	-.14**	-.46 (.08)	-.23***
	T2 애정 → T3 외현화	-.08 (.03)	-.13**	-.14 (.02)	-.26***
	T1 자극추구 → T3 외현화	.50 (.05)	.41***	.37 (.04)	.35***
자율성 존중	T1 자극추구 → T2 자율성 존중	-.15 (.05)	-.14**	-.20 (.05)	-.17**
	T2 자율성 존중 → T3 외현화	-.13 (.05)	-.12**	-.21 (.04)	-.23***
	T1 자극추구 → T3 외현화	.51 (.04)	.41***	.39 (.04)	.38***
과잉간섭	T1 자극추구 → T2 과잉간섭	.18 (.04)	.19***	.18 (.04)	.18***
	T2 과잉간섭 → T3 외현화	.17 (.05)	.13**	.21 (.04)	.20***
	T1 자극추구 → T3 외현화	.49 (.05)	.40***	.39 (.04)	.38***

\*\* $p < .01$ , \*\*\* $p < .001$



주. 괄호 밖은 남자 집단의 계수, 괄호 안은 여자 집단의 표준화 계수  
 \*\* $p < .01$ , \*\*\* $p < .001$

그림 3. 자극추구와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매개모형

표 6. 외현화 문제에 대한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 결과

매개변인	매개효과	95% 신뢰구간		매개효과의 남녀 차이 (팬텀변수 계수)	
		하한값	상한값		
애정	남	.02	.007	.048	여자 > 남자
	여	.06	.037	.099	-.04*
자율성 존중	남	.02	.004	.043	남녀 차이 없음
	여	.04	.020	.068	-.02
과잉간섭	남	.03	.008	.059	남녀 차이 없음
	여	.04	.019	.065	-.01

\* $p < .05$

인되었고(남자: .02, 여자: .06), 자율성 존중과 과잉간섭의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극추구 기질이 부모의 애정에 의해 매개되어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여자 집단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부

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애정에서만 남녀 차이가 나타났다. 위험회피와 내재화 문제간의 관계, 자극추구와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 모두에서 애정의 매개효과는 여자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나 부모의 따뜻한 정서적 돌봄과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기질이 부모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조절된 매개 분석 절차를 통해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문제행동에 대한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의 영향력은 그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나 대부분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고 개인의 취약한 기질(자극추구 및 위험회피)이 특정한 부모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가까운 미래의 문제행동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양육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를 참고하여, 팬텀변수를 활용한 조절된 매개 분석 절차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극추구 기질, 자율성 존중 양육행동, 내재화 문제에서 유의한 남녀 차이가 나타났으며, 세 가지 변인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이 높았다. 여학생들의 자극추구 기질이 남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국내 선행연구들(오현숙, 2009, 오현숙, 2013, 정현희, 2008)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금호와 정혜원(201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들의 자극추구 기질과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여학

생들보다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사회적 민감성 기질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사실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자극추구 기질에 대해서는 성차에 대한 일관된 보고가 없어 후속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내재화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우울 및 불안 증상은 중학교 1~2학년 때부터 성차가 발생되기 시작하여 중학교 시기 내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은 우울 및 불안 증상을 보인다는 신민정과 정경미(2012)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초기 청소년기는 여학생들의 내재화 문제가 두드러지는 시기라는 사실과 여기에는 여학생들의 높은 자극추구 기질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부모의 자율성 존중 행동을 남학생들보다 높게 지각한 것은 이 시기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자율성 발달이 잘 이루어져있고 그에 따라 부모들이 여학생들의 독립성을 보다 많이 존중해주기 때문일 수 있겠다.

둘째,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선행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자극추구 기질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고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구연익, 노경란, 2012; 문보경, 이정숙, 2013; 이주영, 2010; 임진현, 2005; 한창환, 2003; Rettew, Copeland, Stanger, & Hudziak, 2004; Ruchkin, Eisemann, & Cloninger, 1998; Schmeck & Poustka,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기

질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극추구 기질을 예측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설정한 후 부모양육행동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편, 부모양육행동은 전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 집단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특히, 애정과 자율성 존중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여자 집단에서 문제행동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한 따뜻한 돌봄과 애정이 부족할 때, 자녀의 자율성을 충분히 격려하지 못할 때,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서도 성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내재화 문제에 대한 위험회피 기질의 영향과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자의 경우 1차 시기(T1)의 위험회피 기질이 2차 시기(T2)의 애정과 과잉간섭, 3차 시기(T3)의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차 시기(T2)의 애정과 과잉간섭은 3차 시기(T3)의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애정과 과잉간섭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자율성 존중의 매개효과도 추가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남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일차적으로 위험이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는 유전적 성향에 의해 상당 부분 예측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질은 이차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가까운 미래의 내재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Harris(1998)는 서로 다른 아동이 서로 다른 양육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elicit)고 하였다. 즉, 부모는 조용하고 수줍은 아동에게는 허용적일 수 있고, 비순응적인 아동에게는 권위적일 수 있다. 이처럼 기질은 양육 과정

에서 부모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변인이 될 수 있다(이경하, 서소정, 2012).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이 많고 비관적인 기질적 성향은 그 자체만으로도 1년 후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며, 이러한 기질은 남자의 경우 애정과 돌봄의 감소 및 과잉간섭의 증가로 이어지고, 여자의 경우 그에 덧붙여 자율성 존중의 감소로도 이어져 궁극적으로 내재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행동억제체계가 어머니의 자율성 존중, 아버지의 돌봄, 아버지의 자율성 존중을 매개로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최근 연구와 일맥상통한다(한나, 이승연, 노경란, 2014).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자녀를 둔 부모는 조심성과 수줍음이 많고 매사에 비관적이고 위축되는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다(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특히 청소년기는 그 어떤 발달 시기보다 주도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높은 위험회피 기질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적 도전 상황에서 주눅들게 하는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그러한 자녀에 대해 따뜻한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제공하기 보다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과잉보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양육행동은 오히려 이후의 내재화 문제를 발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들은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지지와 애정을 제공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나친 간섭이나 과보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험회피 기질과 내재화 문제와의 관

계에서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애정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애정의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위협회피 기질이 부모의 애정 및 돌봄 행동을 감소시켜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차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비교적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를 다룬 Shaw, Winslow, Owens, Vondra, Cohn과 Bell(1998)의 연구에서는 여아 집단에서만 비순응적 기질과 어머니 거부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1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Oldehinkel, Veenstra, Ormel, De Winter와 Verhulst(2006)의 연구에서는 여학생 집단에서만 우울 증상에 대한 공포(fear) 기질과 부모 거부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을 살펴본 강지현과 오경자(2011)의 연구에서도 남아들은 기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여아들은 부모양육행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자들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행동에 특히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가깝고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부모 양육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Cyranowski, Frank, Young, & Shear, 2000). 또한,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모의 거부나 애정 부족에 덜 민감할 수 있다(Leadbeater, Kuperminc, Blatt, & Hertzog, 1999). 따라서 위협회피 기질이 높은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정서

적 지지와 관심, 애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외현화 문제에 대한 자극추구 기질의 영향과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녀 모두 1차 시기(T1)의 자극추구 기질이 2차 시기(T2)의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 및 3차 시기(T3)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2차 시기(T2)의 애정, 자율성 존중, 과잉간섭은 3차 시기(T3)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세 가지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모두 확인되었다. 즉, 남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는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인 보상 단서에 끌려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적 성향에 의해서도 예측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질은 이차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가까운 미래의 외현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롭고 낮은 자극에 쉽게 흥분하고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즐기는 충동적인 기질 성향은 그 자체만으로도 1년 후의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며, 이러한 기질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애정과 자율성 존중의 감소 및 과잉간섭의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외현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청소년들은 쉽게 흥분하고 심사숙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즉흥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부모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9~13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격 특성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3년 후의 외현화 문제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Prinzie, van der Sluis, de Haan과 Dekovic(2010)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덜 우호적일수록 어머니의 과잉반응성이 증가했고 이는 3년 후의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켰다. 즉,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아동들은 처벌에 덜 민감하여 부모의 과잉반응적인 양육태도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외현화 문제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높은 자극추구 기질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돌봄과 애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극추구 기질이 높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양육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극추구 기질과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비교한 결과, 애정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율성 존중과 과잉간섭에서는 남녀의 매개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추구 기질이 부모의 애정 및 돌봄행동을 감소시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는 여학생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재화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에서도 애정의 매개효과는 여학생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녀의 자극추구 기질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들의 자극추구 기질이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높은 자극추구 기질은 진취적인 모습으로 간주되어 사회문화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있는 한편 여학생들의 높은 자극추구 기질은 사회문화적으로 훨씬 덜 수용되고 억압될 가능성이 많다(Fagot, Hagan, Leinbach, & Kronsberg, 1985). 따라서 여학생들의 높은 자극추구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칫 더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애정과 돌봄이 제공된다면 높은 자극추구 기질을 가진 여학생들을 외현화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기질, 부모양육행동,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부모양육행동 중 애정의 매개효과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취약한 기질을 가진 남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위험회피나 자극추구 기질은 다양한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적 경향성으로 일생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된다(Cloninger, 1987). 따라서 취약한 기질의 영향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제 3의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지만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나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결정된다.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는 양육 과정에서 자녀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쉽게 짜증스러워지고 참을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위험회피 기질이나 높은 자극추구 기질은 애정이나 자율성 존중과 같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감소시키고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그러한 양육행동의 변화가 결국 이후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결핍, 돌봄과 관심의 부족, 따뜻한 정서적 지지의 부족 등은 취약한 기질을 지닌 여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취약한 기질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기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양육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성숙한 양육방식은 특히 여학생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보고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은 청소년 자신의 기질이나 심리적 문제에 의해 일정 부분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보고나 제 3자에 의한 관찰 등의 절차가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부모양육행동을 평가하였는데 자녀의 기질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Ganiban, Ulbricht, Saudino, Reiss, & Neiderhiser, 2011). 둘째, 청소년의 기질 역시 자기보고식으로만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 자신의 기질이나 심리적 문제에 의해 왜곡되어 평가될 수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기질 또한 자기보고식으로 평가될 경우 평가 시점에서의 정서 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평정이 추가될 수 있다면 보다 객관적인 기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기질을,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극추구 기질만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변인에 대해서도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내재화 문제는 자극추구보다는 위험회피 기질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외현화 문제는 위험회피 기질보다는 자극추구 기질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본 연구의 표 2를 참고하면 두 가지 기질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질 모두를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 포함시켜 분석하지 않은 것은 개별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따로 검증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각각의 매개효과에서 유의한 성차가 드러나는지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기질과 부모양육행동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형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넷째,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 본 연구의 표 2를 보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는 매우 흔하게 동시발생하기도 하고 시간차를 두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이주영, 오경자, 2010; Wolff & Ollendick, 2006). 따라서 두 가지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발달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섯째, 기질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설

명하는 매개변인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 양육행동 이외에도 청소년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 및 환경적 변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Cloninger (2004)의 기질 및 성격 모형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성숙도가 기질의 영향력을 조절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문제행동에 대한 기질의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신의 성격적 성숙도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들의 성격적 성숙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기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기질적 특성이나 성격적 성숙도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1-21.
- 구연익, 노경란 (2012).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기질 및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1-20.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221-236.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문보경, 이정숙 (2013).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41-60.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서울: (주)마음사랑.
- 박현진, 이주영, 문경주, 권정혜 (2010). 자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및 성격이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25-44.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발현 시기와 연령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93-114.
-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주)휴노.
- 오현숙 (2009). 중학생의 기질, 성격, 지능, 성적의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87-407.
- 오현숙 (2013). 청소년의 주의력과 기질의 관계에 나타나는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89-610.
- 이경하, 서소정 (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이금호, 정혜원 (2013).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한 기질 및 성격검사(TCI)의 구인동등성 분석 및 잠재평균분석. *교육연구논총*, 34(2), 57-77.
- 이주영 (2010). 초기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공존 발달: 기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영, 오경자 (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53-72.
- 이주영, 오경자 (201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시간적 발달 관계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97-518.
- 임진현 (2005).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기질과 자기개념 및 정서 특성.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현주, 이대균 (2013). 영아의 기질과 발달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방식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125-144.
- 장휘숙 (2009). 청년심리학(제4판). 박영사.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정현희 (2008). 성별에 따른 아동의 기질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5(2), 19-36.
- 한나, 이승연, 노경란 (2014). 중학생의 행동억제체계,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불안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2), 327-348.
- 한창환 (2003). 생물유전적 기질과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우울, 품행장애성향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성격, 자아상 및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12). 구조방정식 모형의 고급방법. 에스엔엠 리서치 그룹.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Bates, J. E., Pettit, G. S., Dodge, K. A., & Ridge, B. (1998). Interaction of temperamental resistance to control and restrictive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4(5), 982-995.
- Beauchaine, T. P., Hong, J., & Marsh, P. (2008). Sex differences in autonomic correlates of conduct problems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7), 788-796.
- Belsky, J., Robins, E., & Gamble, W.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al competence: Toward a contextual theory. In M. Lewis(Ed.),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Burnette, M., Oshri, A., Lax, R., Richards, D., & Ragbeer, S. N. (2012). Pathways from harsh parenting to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 multidomain test of gender moder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 857-870.
- Chambers, J. A., Power, K. G., Loucks, N., & Swanson, V.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distress in a group of incarcerated young offenders in Scotland.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 318-325.
- Cloninger, C. R. (1987). A systematic method of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4, 573-588.
- Cloninger, C. R. (2004). *Feeling Good: The Science of Well-being*. New York: Oxford.

- Cloninger, C. R., Przybeck, T. R., Svrakic, D. M., & Wetzel, R. D. (1994).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TCI): A Guide to its Development and Use*. St. Louis, Missouri.
- Cyranowski, J. M., Frank, E., Young, E., & Shear, K. (2000). Adolescent onset of gender differences in lifetime rates of major depression. A theoretical model.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 21-27.
- De Clercq, B., Van Leeuwen, K., De Fruyt, F., Van Hiel, A., & Mervielde, I. (2008).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patholog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76, 357-383.
- Enns, M. W., Cox, B. J., & Larsen, D. K. (2000). Perceptions of parental bonding and symptom severity in adults with depression: Mediation by personality dimension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 263-268.
- Fagot, B. L., Hagan, R., Leinbach, M. D., & Kronsberg, S. (1985). Differential reactions to assertive and communicative acts of toddler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56, 1499-1505.
- Gamsa, A. (1987). A note on a modificat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291-294.
- Ganiban, J. M., Ulbricht, J., Saudino, K. J., Reiss, D., & Neiderhiser, J. M. (2011). Understanding child-based effects on parenting: Temperament as a moderator of genetic and environmental contributions to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7(3), 676-692.
- Goth, K. (2000). *Konstruktvalidierung des Junior Temperament and Charakter Inventars*. Unveroeff. Diplomarbeit, Frankfurt.
- Harris, J. R. (1998). *The nurture assump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Heider, D., Matschinger, H., Bernert, S., Vilagut, G., Martinez-Alonso, M., Dietrich, S., & Angermeyer, M. C. (2005). Empirical evidence for an invariant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six European countries. *Psychiatry Research*, 135, 237-247.
- Hoffmann, J. P., & Su, S. S. (1998).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nd depression: Conditional and gender differentiated effects. *Substance Use & Misuse*, 33(11), 2219-2262.
- Kim, K. J., Conger, R. D., Lorenz, F. O., & Elder, G. H. (2001). Parent-adolescent reciprocity in negative affect and its relation to early adult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 775-790.
- Leadbeater, B. J., Kuperminc, G. P., Blatt, S. J., & Hertzog, C. (1999). A multivariate model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268-1282.
-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infant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eve, L. D., Kim, H. K., & Pears, K. C. (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s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33(5), 505-520.
- Luby, J. L., Svrakic, D. M., McCallum, K., Przybeck, T. R., & Cloninger, C. R. (1999).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of a child self-report measure. *Psychological Report, 84*, 1127-1138.
- Marshall, M. P., & Chassin, L. (201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2), 80-88.
- Mohr, S., Preisig, M., Fenton, B. T., & Ferrero, F. (1999). Validation of the French version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1065-1074.
- Miner, J. L. & Clarke-Stewart, K. A. (2008).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 2 to age 9: relations with gender, temperament, ethnicity, parenting, and r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4*(3), 771-786.
- Muhtadie, L., Zhou, Q., Eisenberg, N., & Wang, Y. (2013).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Chinese children: The uniqu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child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 653-667.
- Muthen, L. K., & Muthen, B. O. (1998-2009). *Mplus User's Guide. Fif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Narita, T., Sato, T., Hirano, S., Gota, M., Sakado, K., & Uehara, T. (2000).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s measured by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a Japanese population: factor structure and relationship to a lifetime history of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 229-234.
- Oldehinkel, A. J., Veenstra, R., Ormel, J., de Winter, A. F., & Verhulst, F. C. (2006). Temperament, parenting,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population sample of pre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684-695.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52*, 1-11.
- Patton, G. C., Coffey, C., Posterino, M., Carlin, J. B., & Bowes, G. (2003). Life events and early onset depression: cause or consequence? *Psychological Medicine, 33*, 1203-1210.
- Prinz, P., van der Sluis, C., de Haan, A. D., & Dekovic, M. (2010). The mediational role of parenting on the longitudinal relation between child personality and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78*, 1301-1323.
- Reti, I. M., Samuels, J. F., Eaton, W. W., Bienvenu, O. J., Costa, P. T., & Nestadt, G. (2002). Influences of parenting on normal personality traits. *Psychiatry Research, 111*, 55-64.
- Rettew, D. C., Copeland, W., Stanger, D., & Hudziak, J. J. (2004).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DSM-IV ex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25*(6), 383-391.
- Rindskopf, D. (1984). Using phantom and imaginary latent variables to parameterize constraints in linear structural models. *Psychometrika, 49*(1), 37-47.

- Roesn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23-158.
- Rothbart, M.,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105-17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 R. Lerner (Series Eds.),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99-166). New York: Wiley.
- Ruchkin, V. V., Eisemann, M., & Cloninger, C. R. (1998). Behaviour/emotional problems in 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controls in Russia: the role of personality trait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98, 231-236.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 142-170.
- Sentse, M., Veenstra, R., Lindenberg, S., Verhulst, F. C., & Ormel, J. (2009). Buffers and risks in temperament and family for early adolescent psychopathology: Generic, conditional, or domain-specific effects? The TRAILS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45, 419-430.
- Schmeck, K., & Poustka, F. (2001). Temperament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Psychopathology*, 34, 159-163.
- Shaw, D. S., Winslow, E. B., Owens, E. B., Vondra, J. I., Cohn, J. F., & Bell, R. Q. (1998). The development of early externalizing problems among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 transform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95-10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lberg, J., Rutter, M., Neale, M., & Eaves, L. (2001). Genetic moderation of environmental risk for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t girl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 116-121.
- South, S. C., Krueger, R. F., Johnson, W., & Iacono, W. G. (2008). Adolescent personality moderates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5), 899-912.
- Stice, E., & Gonzales, N. (1998). Adolescent temperament moderates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antisocial behavior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5-31.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 201-220.

원고접수일 : 2014. 7. 25.

게재결정일 : 2014. 11. 13.

## **The longitudinal effects of temperaments and parenting on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y gender**

**Joo-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etween temperaments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and teste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by gender using a phantom variable. A total of 1,608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study variables were measured in 6-month intervals. Temperament was measured in Time 1, perceived parenting was measured in Time 2, and problem behaviors were measured in Time 3. In a relationship between harm avoidance and internalizing behavior, mediation effects of warmth and intrusion were significant in boys, and mediation effects of warmth, autonomy granting, and intrusion were significant in girls. Girls showed higher mediation effects of warmth. A relationship of novelty seek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mediated by warmth, autonomy granting, and intrusion in both boys and girls. However, girls showed higher mediation effects of warmth. This study clearly demonstrates a causal relationship of temperament,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based on longitudinal data. It is apparent that mediation effects of parenting are moderated by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ce, internalizing, externalizing,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parenting, moderated mediation, longitudinal